

장애인 권리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 障碍人 權利宣言]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의 인권선언으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의 인권선언이다. 이 선언은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70년 무렵부터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1969년 12월 11일 유엔총회에서는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을 채택했는데, 19조에서 정신지체 또는 지체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조치의 제도화, 교육, 직업 훈련과 배치 등을 통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1971년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는 '지적 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을 채택했으며, 이 선언은 지적 장애인이 실현 가능한 정도까지 적절한 의료와 교육, 경제적 안정, 착취로부터의 보호와 법적 절차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지적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기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69년과 1971년의 두 선언은 이후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장애인에게도 명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담은 장애인 권리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장애인 권리선언은 전문과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 받을 권리,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에 대한 권리, 치료받을 권리, 경제 및 사회적 생활 보장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능력에 따른 고용에 대한 권리, 경제 및 사회적 계획 수립의 모든 단계에서 특별한 필요조건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권리, 가족과 함께 살면서 사회 활동과 생산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안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과 지역사회는 그들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6년 12월 13일에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오브리 웹슨(Aubrey Webson) 엔티가바부다 유엔 대사(2014~현재)는 **시각 장애인으로 유엔 193개국 최초 유엔대사로 현재도 근무 중이며**, 이전에 Webson 박사는 1992년부터 Perkins School for the Blind의 기관 개발 컨설턴트로 일하며 관리, 리더십 훈련, 정책 수립을 전문으로 했다. 그 전에 웹슨 박사는 Sight Savers International 및 Helen Keller International에서 근무하며 HKI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개발 프로그램에 자문을 제공했다.



오브리 웹슨(Aubrey Webson) 엔티가바부다 유엔대사(2014~현재)

1981년부터 1987년까지 그는 카리브해 시각 장애인 협회회의 최고 경영자였으며 Wheelock 대학, East Nazarene 대학, 보스턴 대학, 보스턴 대학, 남아프리카 대학, Vender 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겸임 교수 또는 객원 강의를 역임했다. 웹슨 박사는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 10년 폐막식(1991) 연설을 했으며, 1996년과 2002년 세계 시각 장애인 연합 총회에서 특집 연설자로 활동했다. 아프리카 포럼(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아프리카 전체 회의)을 개발하고 NGO 및 윤리(2002) 및 NGO 부패 및 민주주의(2001)를 저술했으며, 학생을 위한 Affinity Group과 같은 수많은 조직의 회원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육·고용·복지 등을 체계화하고, 그런 메시지가 부산세계장애인대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국제사회로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8월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에 참가해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행동 변화를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장애 아동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별 프로그램을 추가하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리하지 않는 교육이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장애를 포용하는 사회로 이끌 것이다.”

...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고용 시장을 확대하고, 장애 노인의 보편적 복지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년 발표된 '국제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Trends)'에 따르면 전 세계로 시력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은 11억 명에 달했으며, 2050년까지는 18억 명으로 증폭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 '통계 수치'가 아닌 일상생활, 움직임, 정신건강, 사회생활에 막대한 장애 미치는 질환을 앓는 사람이 곧 증폭할 것을 나타낸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UN Decade of Healthy Ageing)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시력 저하, 특히 노년기의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의 가파른 증가세를 식별하고 올바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협력을 요구했다.



오브리 웹슨(Aubrey Webson) 엔티가바부다 유엔대사(2014~현재)

The Lancet 특별위원회는 특히 코로나19 (COVID-19) 팬데믹 속 간과된 노인성 안질환을 강조했다. UN 안티과·바부다섬 Aubrey Webson 대사(UN Ambassador of Antigua and Barbuda)는 논문을 통해 "팬데믹 중 실명으로 주변을 볼 수 없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킬 수 없고, 시각장애의 경우 청각, 촉각 등 다른 감각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웹슨 대사는 "저비용으로 시력을 교정하고 치료해 실명이나 시각장애 발생을 피할 수 있는 21세기에 안구질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Bonnielin K. Swenor 교수팀도 "시력은 전반적인 건강의 중요한 핵심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력상실은 사람이 단순히 '보는 방법'뿐만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내 김안과병원이 최근 실시한 전국 '고령화에 따른 눈 건강 인식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733명이 노안 증상을 의심했다고 했다. 이 중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과 진료를 받은 자는 약 45%였지만, 40대 중 75%는 노안임을 의심했음에도 진료를 받은 사람은 24%에 그쳤다.

웹슨은 Weatherhead School에서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돕는 아프리카 전역의 조직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변화와 법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웹슨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의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통합을 옹호하며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을 모델로 한 법안을 위해 로비 활동을 펼치면서 그것을 실행했다.

*"리더십에서는 원하는 모든 법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는 또한 관습과 문화를 바꾸는 데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웹슨은 현재 UN 대사로서 국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정책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그의 노력은 그의 고향인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인구 9만 명의 앤티가 바부다와 깨끗한 해변으로 유명하며 지역 경제를 이끌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위협에 처해 있는 여러 작은 섬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웹슨은 "우리는 10억 인구를 가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한 표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더 취약하고 위험도 더 높다"고 말했다. "우리는 150년 안에 물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 변화 회의에서 그는 최종 파리 협정의 일부가 된 기후로 인한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섬나라를 위한 새로운 기금과 같은 조치를 성공적으로 청원한 카리브해 14개 국가의 블록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웹슨은 "나의 조국은 친절하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지상낙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믿고 있습니다."

참고

- ▶ 한글 점자는 1926년 11월 4일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만든 뒤 반포되었다.
- ▶ 대한민국 시각장애인의 문맹률은 86%에 육박하며, 이는 시각장애인의 92%가 후천적 요인으로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교육 시설이 전무한 것도 시각장애인 문맹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다.